

범죄 불안한 광주 “경찰은 뭐하나”

인구 1만명당 범죄발생 487건 ... 전국 광역단체 중 1위

2년6개월 치안환경 자료

광주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각종 범죄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광주 동구는 전국 2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성폭력 범죄 발생이 많은 것으로 꼽혔고, 광산구는 치안 체계 안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광주·전남 경찰이 올 한 해 4대 악절목 등을 내세우며 강력한 치안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말 뿐인 치안 활동’을 펼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유대운 민주당 의원이 15일 내놓은 ‘지역·권역·도시규모별 전국치안환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6개월간 인구 1만명 당 광주에서 발생한 총 범죄발생건수는 487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다.

전남은 290.1건으로 15위를 기록했다.

전국 216개 시·군·구별 총 범죄 발생건수를 분류하게 되면 동구와 서구가 각각 716.7건(5위)·532.3건(10위)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 광주·전남 범죄 불명예 기록

(전국 16개 광역단체·216개 기초단체 중, 인구 1만명당 기준)

- ▶ 5대 범죄 : 광주 2위·전남 12위
- ▶ 범죄 발생 : 동구 5위·서구 10위·북구 19위·광산구 28위
- ▶ 성폭력 범죄 : 동구 5위 (12.7건, 전국 평균의 5배)
- ▶ 체감안전도 : 광산구 전국 최하위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 장흥 44.4명 전국 최다
- ▶ 광주경찰 1인당 담당 인구 623명 - 전국 평균보다 100명 많아

- ※ 딸기진 부모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도시 - 광주 동구
- ※ 학부모들이 자녀 학교보내기 꺼려하는 도시 - 전남 장흥
- ※ 주민들이 범죄 위협에 가장 불안해하는 도시 - 광주 광산구

전국 하위 10위권에는 곡성(206.6건·207위)이 유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이어 북구 442.1건(19위)·광산구 419.2건(28위)·남구 324.7건(97위)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 및 추행·절도·폭행)의 경우 광주가 193건으로 2위, 전남은 95.6건으로 12위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동구 336.4

건(5위)·서구 189.9건(8위)·북구 164.6건(19위)·광산구 143.6건(33위)·남구 130.5건(50위) 등 광주지역 기초자치단체 모두 상위 50위 안에 올라 ‘경찰 치안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는 7대 범죄 연평균(2008~2012) 발생 건수에서도 ‘전국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광주는 연평균 168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은 1100건으로 11위였다.

동구의 경우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가 12.7건으로 전국 5위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이 4.1건인 점을 감안하면 세 배나 높은 수치다.

범죄 안전 지표인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항목에서는 광산구가 5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가 받아들여져 시민들 눈높이에 맞춘 치안 활동이 요구되는 형편이다.

장흥의 경우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44.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525명)보다 99.8명 많은 624.8명으로 조사됐다. 단위 면적 1km당 경찰관 수는 6.0명, 방범 CCTV는 1.5대다. 이는 50만명 대도시 평균 기준 783.1명(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12.3명(km당 경찰관)·7.4대(km당 CCTV)보다 158.3명·6.3명·5.9대 부족한 수치다.

유대운 의원은 “지역 상황에 맞는 치안대책을 세우려면 새로운 범죄통계 시스템을 만드는 등 경찰과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필기자 glee@kwangju.co.kr



연탄은 사랑입니다

광주사회복지행정연구회원들이 15일 광주시 북구 연제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10세대에

게 배달해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승합차 후진 중 급가속 ... 보행자 4명 덮쳐 2명 사망

쌍촌동 S초등학교 앞 길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S초등학교 앞 경사로에서 박모(63)씨가 운전하던 트라제 승합차가 후진 중 급가속하면서 보행자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이모(여·55)씨와 최모(여·62)씨가 차량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걸던 엄모(여·63)씨와 김모(여·45)씨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승합차는 이씨 등 4명과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70m가량 가다 멈춰섰다. 사고를 당한 이씨 등 4명은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을 마친 뒤 귀가 길에 변을 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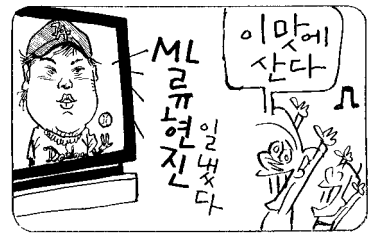
경찰은 박씨의 운전 미숙여부와 차량 결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남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사이버기자 단속

전남 경찰이 지역 사회를 잠먹는 사이버기자 단속에 돌입했다. 사이버 언론 사범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지방 선거에 후보자를 상대로 한 사이버 언론의 횡포가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사이버언론사범 단속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기자 단속에 나섰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이 대상으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

4원침 (8996)



경찰, 서구 창조마을 사업 내사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10일 서구 상무2동 주민센터로부터 지난 2011~12년 추진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비 집행 내용 등 관련 서류 8권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창조마을 사업비 집행 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2동 주민센터 측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조폭 두목 말다툼하다 경찰서행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 보스가 사소한 말다툼을 벌

이다 폭력을 휘두르면서 경찰서행.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1년 10월 중순 광주시 남구 봉선동 V카페에서 건설사 임원 B(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버릇이 없다”며 폭행한 혐의로 광주 폭력조직 M과 두목 A(57)씨를 불구속 입

건.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를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설득, A씨에 대한 혐의를 확인한 뒤 입건하는 등 공을 들였다

는 후문.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무면허 사고 낸 후 처벌 받지 않고 다시 면허 취득한 운전자 어떻게?

권익위와 감사원 사이 낀 경찰의 고민

권익위 “면허취소 시정” ... 감사원 “처벌대책 마련”

경찰, 본청 차원 검토 거친 후 규제여부 결정키로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후 처벌받지 않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0년 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모(52)씨가 같은 해 12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만 했을 뿐, 경찰에 알리지 않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인 다음해 1월 운전면허를 뒀다며 이를 취소한 경찰의 결정에 대해 광

주지방경찰청장에는 시정권고, 경찰청에는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무면허 운전이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서 적용한 ‘결격기간’이 아니고, 경찰에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경찰을 기만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무면허 운전을 하

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로 경찰의 처벌을 받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상반된 입장이다.

감사원은 보험사와 경찰의 교통사고 정보공유 미흡으로 600여명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 경찰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1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지 면허를 탈 수 없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

우’에 해당돼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주 188명, 전남 31명에 대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현재 광주 11명, 전남 7명에 대한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상태다.

상반된 두 기관의 해석에 경찰은 고민이 크다. 일부에서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위법행위인 무면허 운전자에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발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소리로 나온다. 광주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파괴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희망: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女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8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무술산 여성' 희망 33~48세	女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